

故徐萬述議長葬儀、朝鮮会館で挙行

2月19日午後7時5分心不全により84歳で逝去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代議員で労働英雄の故徐萬述議長の葬儀が2月25日、朝鮮会館で行われた。

式場には、総聯中央常任委員会と総聯の各機関、日本の各政党、社会団体と各界人士らが送った花輪が飾られていた。

葬儀には、葬儀委員会委員長の許宗萬責任副議長、副議長、中央監査委員会委員長、総聯中央顧問、各局長、委員会副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葬儀委員ら、総聯本部委員長と老幹部たち、関東地方の総聯活動家と各界各層の同胞、学生たちが参列した。海外同胞統一人士



たちの姿もあった。

また、日本の国会議員と朝・日友好団体の代表ら、報道各社の代表をはじめとする各界人士、そして中国、キューバをはじめとする各国の駐日公館員らが参列した。

参列者たちは故徐萬述議長を追慕し黙とうした。

葬儀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閣の共同名義の弔電と、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中央委員会から寄せられた弔電を総聯中央の南昇祐副議長が読み上げた。

また、故徐萬述議長の経歴を高徳羽副議長が紹介し、許宗萬責任副議長が追悼の辞を述べた。

《総聯傘下団体に対する不当な強制捜索》

警視庁公安部の常軌を逸した暴挙、政治弾圧に怒りを抑えられない!

* 朝鮮新報記事より抜粋

警視庁公安部は2月28日、「外為法違反(無承認輸出)の関係先」との口実で、在日本朝鮮人科学技術協会(科協)と在日本朝鮮人体育連合会(体連)を強制捜索した。警官や機動隊約250人と武装車両など24台を動員し、朝8時に両団体の事務所がある朝鮮出版会館の入口と前の歩道を4時間以上も封鎖し、会館内をくまなく捜索した。同時に、総連東京・板橋支部と中外旅行社の事務所も強制捜索した。不当極まりない強制捜索に関係者は強く反発。同胞や活動家も悪質な政治弾圧に憤激している。



今回の捜索は、逮捕されたコンピューター販売会社社長が科協会員の名刺を持っていたことやメールのやりとりがあったことが発端となっているが、それらは事件とまったく無関係である。仮に個人的なつきあいがあるとしても、それをもって強制捜索が可能なら、一つの事件を持って日本全国すべての個人や団体にまで拡大捜索が許される権力乱用がまかり通ることになる。科協の関係者によると、ある同胞会員と日本人の訪朝で科協が便宜を図った際、コンピューター販売会社社長



がたまたま一緒になっただけで、科協会長にしても「(社長と)一度も会ったことも見たこともない」という。また、捜査員が科協事務所で躍起になって探していたメールは、同社長と科協の職員がたまたま総連板橋支部管内に住んでおり、地域同胞に配布する情報誌を作る際にやりとりしただけのもので、私用で科協のコンピューターが使われたに過ぎない。

日本のメディアが報じていない他3件は、中古コンピューター不正輸出とは別件だ。ある同胞が2009年に訪朝する際、総連板橋支部が申請を受け付け、中外旅行社が航空券を手配した。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それぞれ通常業務の一つに過ぎない。

その同胞が訪朝する際、務めていた貿易会社の社長の指示でコンピューター1台を朝鮮に持ち込んだことが事件化されているが、それによって渡航手続きを代行した団体や旅行社が捜索を受けるなど前代未聞だ。

体連に至っては、その同胞と同じ地域に住む体連の職員が問い合わせを受け、口頭で支部を紹介しただけだ。「こじつけるにしても、あまりに無理がある」と関係者は呆れ返っている。

これらの事実は、捜索の目的が総連各団体への弾圧、関連施設や活動家に対する諜報、それを合法化するための政治ショーにあ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情報収集目的のためには違法な「事件化」もためらわない日本当局の権力犯罪を示すものである。

一方、今回の総連傘下団体に対する強制捜索は、民主党が政権に就いて以来、初めてのことだ。朝米関係の進展による焦り、国内政治経済の不調から世間の目を逸らすためのパフォーマンスだとの指摘も上がっている。

神奈川県同胞新年会&交流会

2012年2月5日(金)
神奈川中高 体育館

この日、神奈川県下の役員、同胞たちが一堂に会し2012年神奈川県での運動方針を確認し、今後の地域活性化の為の決意を新たにしました。新年会1部では共和国を取り巻く情勢についての講演が行われ、続いて総聯本部委員長により2012年の神奈川運動についての説明があった。昨年、中高創立60周年を輝かしく迎えた実績を土台にして更なる飛躍の年となるよう、各地域一致団結して今年の運動を盛上げて行こうとの呼び掛けに、参加者たちのボルテージも上がる。



南武支部からの参加者



2部で披露した女盟役員達の歌



1部講演会の様子

2部では各地域がテーブルを囲み新年交流会が行われた。食事をしながら杯を交わし、それぞれの地域代表が今年の抱負を発表した。また、総聯イルクンの歌や、女性同盟役員達の歌、朝青員たちによる合唱が披露され交流会は終始賑やかながら、決意に満ちた雰囲気にもまれていた。



県青商会第11期1次 拡大幹事会

拡大幹事会には中央幹事長が参加し、県下7地域の青商会幹事たち31名が参加して行われた。

会議では中央青商会15期運動『K-興グランプリ』の中間報告と地域別活動報告が行われ、県青商会からの問題提起と、県的な運動の概要が伝えられた。会議後の交流会では今期の運動に臨む幹事たちの熱い決意が伝わってきた。



拡大幹事会参加者の決意は固い!



南武からの参加者



2/11に行われた『青商会関東ブロック役員研修会』にて南武青商会の活動報告について討論する朴慶七会長。南武からは4名が参加。

朝米会談で新たな進展!

第3次朝米高位級会談 北京で開催

(2012年2月23日~24日)

中国北京で行われた第3次高位級会談で合意された共同声明が29日に発表された。発表によると「朝鮮は寧辺のウラン濃縮施設(UEP)稼働中止などの事前措置をとり、アメリカは24万tの栄養支援をすることに合意した」とあり、6者会談再開へ青信号が点灯した事になった。

〈朝鮮中央通信〉によれば朝鮮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アメリカは24万tの栄養食品を提供し追加的な食糧支援を実現するための努力をすとし、双方はこの為の行政実務的措置を即時とる」と明かした。また、「アメリカは対朝鮮制裁が人民生活の民需分野を狙っているのでは無い事を明確にした」とし、続けて「6者会談が開催されれば、共和国に対する制裁解除と軽水炉提供問題を優先的に論議することになる」と明かした。これに対し朝鮮は「6者会談が開催される期間、核実験及び長距離ミサイルの発射実験、寧辺各施設の稼働停止とIAEAの監視受け入れ」を許す形となった。これと同時に双方が2005年6者会談で合意した9.19共同声明履行の意思を確認し、平和協定が締結されるまで、停戦協定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を守る礎石になることを認めた。

これにより6者会談の再開と朝米関係が加速的に進展する可能性が見えてきた。



協議に参加した朝鮮の金桂冠(キム・ゲ・ゲアン)第1外務次官(右)と、アメリカのグリーン・デービス政府特別代表(左)

神奈川中高で第6回献血実施!

神奈川中高 中央玄関 2012年2月23日(木)

南武支部にストーブ寄贈



献血車の前で記念撮影♪



学生たちの奇妙な活動に拍手です!

今年も神奈川中高3年生による献血事業が行われました。今年で6回目を迎えた献血は、卒業を前にした学生たちが社会奉仕活動の一環として行ってきました。中高献血はその活動を評価され、県知事から感謝状を貰ったこともあるほどです。

今回は所長はじめ4名の責任者たちも学校を訪れ、学生たちの活動に感謝とお礼を述べて行ったといいます。これからも学生たちの地域密着型活動に注目です!

お疲れさまでした☆

支部のストーブの老朽化につき新しいストーブ購入を検討していたところ、남부고려장수회 장순옥 부회장이支部ストーブを新しく寄贈して下さいました!

顧問は何年も前から支部のストーブが古かった事を気にかけていて、「同胞が集まる支部の為なら自分が寄付する!」とおっしゃって下さいました。心が暖かくなる気づかいに感謝してもしきれません!



大切に使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정말로 고맙습니다!

第2段! 南武学校学生《꽃송이》현상모집1等受賞!



남부초급학교 우애나
초급부6학년 작문부문
추억깃든 노래



지난해 학예회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청춘가》란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 아버지, 어머니들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청춘가》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젊으실 때 즐겨 부르신 노래 10곡을 조사하여 학예회무대에서 부른 연목의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주 좋아해주시며 잘했다고 거듭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행복스런 얼굴을 상상하면 지금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학예회를 한달 후에 앞두고 우리의 앙케트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곡정도의 노래제목이 써여진 한장의 종이를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내가 아는 노래도 몇곡 있었지만 처음으로 듣는 노래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노래들을 아실까?)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의 노래소리를 들은적이 없어 노래를 모르실가봐 걱정되었으나 무슨 노래를 고르실가 생각하니 마음이 들썹들썹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당장 아버지에게 연목설명을 한 다음 무슨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르신 노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였습니다.

《어째서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부른 노래란다.》

할머니집에서 살짝 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사진에서 부끄러워하시면서도 행복하게 부르시는 모습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니?》 《아니, 그저.》

나는 종이에 《세상에 부럼없어라》라고 쓴 다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청춘기간 무엇이예요?》 《음. 이 노래도 저 노래도 청춘시절이 떠오르는데 어머니 이 노래가 제일 추억이 깊어.》

어머니는 《희망의 길》을 가리키시었습니다. 《어떤 추억이 깃들어있어요?》 이 노래는 대학시절에 조선의 꽃봉오리들을 키우는 유치원교원으로 나설 확고한 결심을 다지게 해준 아주 추억깊은 노래라고 어머니는 들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조사를 한 종이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집계를 하시고 그날 방과후에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가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10등은 《너성은 꽃이라네》였습니다. 이어서 9, 8, 7등이 발표되었습니다.

《6등 <세상에 부럼없어라>》(야, 아버지가 고른 노래를

부를수 있구나.)5, 4, 3등이 발표되었습니다. 2등은 나도 좋아하는 《휘파람》이였습니다.

《드디어 1등입니다. 1등은 《희망의 길》입니다.》

《울지!》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노래련습, 동작련습을 열심히 하여 학예회무대에서 아버지, 어머니들께 기쁨을 드린것입니다. 나는 아직 11년간밖에 안살았지만 나에게게도 추억깃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푸른 나무야》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나가와중고창립 60돐을 축하하여 가나가와현에 있는 초급부 고학년생들이 가나가와중고 오빠, 언니들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에는 60년간의 역사를 지켜보는 한그루의 아름드리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방의 기쁨과 조국의 사랑을 담아 심어주신 나무입니다.

우리는 2학기가 되어서 2주일에 한번 가나가와중고에 모여서 노래련습을 하였는데 내 자리에선 그 크고 정다운 나무가 잘 보였습니다. (저 나무로구나.)

가사 그대로 높이높고 푸르싱싱한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니 그 나무가 우리를 지켜보아주는것만 같았습니다.

10월 9일.

새벽까지 내리던 큰비도 멎고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아래서 《가나가와중고창립기념축전》의 축포가 울렸습니다.가나가와중고를 졸업한 오빠, 언니들은 물론 옛날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란 일본사람이랑 수천명이 모였습니다. 가나가와중고 운동장에 설치된 큰 가설무대에서는 기념식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의 합찬 노래, 무용부언니들의 멋진 춤들이 피로되고 드디어 우리의 순번이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나의 눈을 끈것은 역시 푸른 나무였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야 높이높은 나무야...》

나는 크면 선생님이 되고싶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말과 글, 우리 노래와 춤을 학생들에게 배워주고싶습니다.

노래가사속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버지가 배우고 매를 이어 내가 배우고 그 모습 지켜보며 년륜을 새겨왔다네》라는 대목입니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를 이으신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대를 이어 조선학생으로 떳떳이 자라나 꼭 선생님이 되어 이 노래를 학생들에게 배워주고싶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아이가 《어머니의 청춘가는?》라고 물으면 나는 망설임없이 대답할것입니다.

《우리 학교 푸른 나무야》라고.

幸 全峰碩トム・孫景順トム 喜

グランドハイアット東京
2012年2月18日(土)

溝ノ口分会
孫文吉氏、李茂美氏 夫妻 長女



孫景順さんと全峰碩さんの結婚披露宴がグランドハイアット東京にて行われました。沢山の友人や恩師、同胞たちの祝福の中で人生の新たな一歩を踏み出すことになったお二人に幸せだけがありますように♪

ご結婚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似合いのお二人です☆

ウェルカムボードの前で 大好きなハルモニと

4コマ漫画 南武美ちゃん no.19



神奈川同胞祖国訪問団

2012年 6月20日(水) ~ 28日(木) 8泊9日

参加費用: ¥230,000 (渡航費、祖国滞在費等)

*別途旅券発給費用などが掛かります。詳しくは支部迄ご連絡ください。

(午前8:00成田空港集合)

往路: 成田 (10:00発) - 瀋陽 (12:30着)

瀋陽 (15:00発) - 平壤 (17:10着)

(平壤ホテル午前8:30出発)

復路: 平壤 (10:30発) - 北京 (11:30着)

北京 (15:45発) - 羽田 (20:15着)

お問合せ: 南武支部 044 (722) 0724

鄭大世 9

移籍後、初デビュー!

我らが鄭大世選手がFCケルンに移籍後始めてピッチにその姿を現した! デビューまでベンチ入りしながらも、出場の機会が無かったテセ選手だが2/25 vsレバークーゼン戦後半開始から出場し見事1部デビューを果たした。



惜しくもゴールは無く、チームも0-2で負けてしまったが、1部のピッチ上に立つテセ選手を見る事ができ、興奮を抑えられなかった。これからの活躍に期待です!

3月予定	行事(予定)
4日(日)	神奈川中高 高級部卒業式
7日(水)	支部常任委員会(19:00)
9日(金)	高麗会ミニデイ(11:00)
10日(土)	朝鮮大学校 卒業式
11日(日)	神奈川中高 中級部卒業式
12日(月)	女盟支部常任委員会(10:30)
14日(水)	商工会理事会(18:00) 教育会理事会(19:30)
16日(金)	南武青商会『勉強会』
18日(日)	南武初級学校 卒業・卒園式
28日(水)	高麗会ミニデイ(11:00) 神奈川学生会 文化公演(19:30開演) 関内ホール*小ホール